

전남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 '눈살'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시상대 박차고 내려와 한 때 '당황' 입상자 30여 명 등 주변 관람객 "이런 시상식 처음 봤다" 술렁

지난 24일 담양군 전전후계이트볼 구장에서 열린 제3회 전라남도지사기 노인게이트볼대회 시상식에서 전남노인연합회장이 권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추태를 보여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각 시 군에서 44개 팀과 선수 450여 명이 경기를 펼쳐 입상자 시상식에서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와 "이런 시상식 처음 봤다"며 "이런 시상식 못하겠다"고 단상을 뛰쳐 내려가는 비참한 입상자들과 시상식을 지켜보던 관람객들이 한 때 당황해 술렁거렸다.

이 대회는 전라남도가 후원하고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에서 주관하는 65세 이상 노인팀으로 시 군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선수들이었다.

경기를 펼치는 경기장 내에는 선수상호간 온화하고 화기가 넘치는 분위기로 시종일관 진복과 화합을 다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경기를 마치고 대한노인



회 전라남도연합회장 주제로 시상식에서 다 된 잔치에 스스로 코를 빼뜨린 격이 되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다.

물론 주관을 했던 연합회 임원들의 실력과 만류로 마지못해 시상은 마쳤지만 같은 입장의 노인선수 입상자 30여 명을 집결한 자리에서 이런 행동은 스포츠맨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신성한 운동장에서 그것도 운동선수 앞에서 주최자의 수

장의 행위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시상대에 올라간 강 회장은 개회식에 참석한 450여 명의 인원이 마지막 시상식에서도 빠짐없이 집결할 것으로 생각하여 화를 참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원거리에서 참석한 선수 임원은 예선전에 탈락을 하면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시상식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진 해산 하는 것이 관

례다.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에 따르면 원거리에서 참여한 선수들의 편익을 위해 3.4위는 경기 도중 약식 시상을 마치고 귀가 하는 배려를 보여왔다.

그러나 강 회장은 같은 노인으로서 이런 배려 의식에 결여된 것 같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시상식을 지켜보던 한 선수는 강 회장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이런 시상식 처음 봤다"며 "자신이 이런 대회에 선수로 참여했다는 것이 참괴하다"고 푸념을 하기도했다.

이런 추태를 보였던 강 회장은 그래도 대회사에서는 "노인게이트볼대회는 노인회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인 사회참여와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통해 건강한 노인, 활기찬 노년을 도모,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되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한 말이 무색하게 만들어 뜻 깊은 대회의 마무리에 찬물을 끼얹은 회장의 모습이 참석자 모두를 아쉽게 했다.

이홍재 기자

일선 경찰서장 술집서 부적절 발언 112신고

광주 일선 경찰서 서장이 술집에서 동석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24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술집에서 한 여성이 광주 모 경찰서 A 총경으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여성은 A 총경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고 내용은 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이 확인될 경우 A 총경을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여성이 다리를 꼬고 있어 치위 달라고 이야기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술자리를 마쳤는데 112 신고가 돼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정황을 물어 봤다"며 "동석했던 다른 여성도 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 했다"고 해명했다.

신봉우 기자

대전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7명 RSV 감염

대전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7명이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이 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7명이 재채기와 콧물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 및 진단 결과 모두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산후조리원은 지난 17일부터 일시폐쇄 조치된 상태다.

RSV 관련 감염증에 걸리면 성인의 경우 가벼운 감기 증상을 앓고 지나가지만 영유아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중증화될 수 있다.

바이러스 잠복기는 2~8일(평균 5일)이며 증상이 발생한 뒤 1~2주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구보건소는 산모, 신생아 침대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다행히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 피해 부모는 "RSV는 감염성이 강한 질병인데 산후조리원과 대전 서구보건소의 대처가 미흡해 여러 아이들이 순식간에 감염되는 사태가 났다"고 말했다.

해당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우리 산후조리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스럽다"며 "보건소 측의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조리원을 일시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돈 받은 경찰관, 돈 세다 CCTV에 찍혀 덜미

뒷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사무실에서 돈을 세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5일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3월 초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건설사 간부를 만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 대접과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감이 사무실에서 돈을 세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하는 등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A경감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경찰은 감찰조사를 진행한 이후 A경감을 징계할 예정이다. A경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부근서 난폭운전 20대 검거

초등학교 근처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경찰의 정지 명령조차 무시한 채 난폭운전을 하던 2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남 관악구 서울남부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마구 몰던 김모(2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40분께 신호위반을 하다가 등교길 교통안전 근무를 하던 경찰에게 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남부초등학교 앞부터 신림역까지 약 3km 구간을 질주하며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공유수면 불법 매립 혐의 업체·공장장 입건

여수 해안가 공유수면 700㎡ 매립 8개월간 사용

어민불편 초래·항로 안전상 문제...해경수사확대

여수시 어촌마을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와 업체 관계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일원 해안가의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고 장기간 점용·사용한 B사와 공장장 K(53)씨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만들어 관공서 등에

납품·판매하는 B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해상으로 진수시켜 납품하기 위해 공장 앞 해안가 공유수면 700㎡(약 21평) 가량의 경사를 담당 행정관청의 매립면허 없이 8개월가량 장기간 불법매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는 자체 생산한 대형해상구조물을 행정관서의 공유수면 사

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포구 앞 100m 해상에 장기간 보관 방치하는 등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 불편을 초래하고 항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B사와 공장장은 이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행위가 만연했을 것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해임요구 논란' 광주그린카진흥원장 자진 사퇴

일신상 이유로 사표 제출...광주시, 수리

직원들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아 온 오일근 광주그린카진흥원장이 결국 자진사퇴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 원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그린카진흥원 이사장인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이를 수리했다.

오 원장은 지난 2016년 7월 제3대 그린카진흥원장에 취임했으며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1년9개월 만

에 중도하차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그동안 자동차밸리산업추진위에 대한 감사와 직원들의 원장 해임 요구 등으로 잡음이 있었다.

이달 초 광주그린카진흥원 직원 22명은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시에 해임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선

직원들이 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 광주시 전략산업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

으며 그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2011년 민선 6기 최대 협안인 친환경 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당초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으로 출범했다가 지난 2015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서은홍 기자



KFS 한국농어촌공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확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구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확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에 비해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구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